

일반 청소년들과 다문화 청소년들의 성 관련 경험 차이: 아버지의 학력과 성교육의 조절효과 검증

남수정*¹⁾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Differences in sexual experiences between general and multi-cultural adolescents: verifying regulation effects of fathers' education and sex education

Nam, Su-jung*¹⁾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Abstract

This investigation analyzed differences in sexual experiences between general and multi-cultural adolescents using the 7th data of youth health behavior online survey and examined effects of fathers' education and sex education on these differences. Specifically, sexual experiences were assigned as dependent variable, multi-cultural background as independent variable, and fathers' education and sex education as moderating variable. Effects of independent and moderating variables were examined using SPSS 20.0 to perform GLM (General Linear Model). As a result, a main effect of multi-cultural background was verified along with the regulation effects of fathers' education and sex education. Specifically, multi-cultural adolescents had more sexual experiences than general adolescents and the effects of fathers' education and sex education were more significant with multi-cultural adolescents than those with general adolescents. While fathers' education and sex education of general adolescents did not make a big difference in sexual experiences, multi-cultural adolescents whose fathers' education levels were low and those who were not taught sex education had more sexual experiences.

Key words: 다문화 청소년(multi-cultural adolescents), 성 관련 경험(sexual experiences), 성교육(sex education), 아버지의 학력(fathers' education)

1) 교신저자: Nam, Su-Jung, 303 Cheonjam-ro, Wansan-gu, Jeonju, Jeonju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063-220-2740, Fax: 063-220-2053, E-mail: bluesj@jj.ac.kr

I. 서론

1990년 이후 꾸준히 국제결혼이 이어지면서 한국사회는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로 아시아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사회에 편입되는 형태로 다문화 가정이 형성되고 있다. 다문화 가족 증가는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족의 2세 증가로 이어지며 2000년대 중후반부터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수행된 연구들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은 한국의 전통적인 단일 민족정서에 따른 인종적 편견, 부부 간의 의사소통 상의 어려움, 이주 부모의 한국문화 적응의 어려움, 낮은 사회 경제적 수준 등을 경험하고 있다(Han, 2012; Koo & Choi, 2012; Kim & Shin, 2014). 다문화 가족의 부모들은 새로운 문화의 진입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심리사회적 적응을 저해한다(Noh, 2000). Kim과 Shin의 연구(2014)에서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부모들의 낮은 학력 수준, 외모의 차이로 인한 따돌림 문제, 학업의 부진에 따른 고민 등으로 인해 적응이 쉽지 않다고 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간 다문화 가정의 여러 가지 부적응 문제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유독 다문화 가정의 성 관련 경험과 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보기 어렵다.

청소년기에는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성적인 욕구가 강해지며 이성과의 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건전한 성의식이나 성태도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이나 피임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이고 위험한 성 관련 경험을 하는 경향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Han et al.2002; Havighurst, 1972).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일반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40% 정도가 이성 교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ee, 2013), 데이트 시 성적 허용 정도는 점차 높아져 손잡기, 껴안기, 키스 등의 신체 접촉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고 초등학교

의 16%는 서로 사랑하고 상대가 원하면 성관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성 관련 경험은 과거와 비교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Lee, 2013).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충분한 준비 없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녀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되며, 성과 관련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본인 스스로도 성관련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성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워줄 수 있는 성교육이 필수적이며(Yoon, Jeon, & Park, 2009), 성교육은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간관계 교육이기 때문에 부모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이므로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Gu, 2008, Kim & Lee, 2005).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2세가 겪게 되는 성 관련 문제는 부모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의 부족과 체계적인 성교육의 부재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에서의 양육문제와 자녀의 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본 소수의 선행연구(곽금주, 2008; Koo & Choi, 2012)에서는 대부분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문화가정은 자녀의 주 양육을 맡게 되는 어머니들이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문화 간 양육태도의 차이 등으로 한국가정의 어머니들보다 자녀양육에 더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Han, 2012). 따라서 성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성교육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 가정 청소년들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성 관련 경험을 비교해 보고 이에 대한 부모의 학력과 성교육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관련 문헌 고찰

위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관련 경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가정 청소년들의 성 관련 경험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청소년의 성 관련 경험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Han 외(2002)의 조사에서 남자 고등학생의 11.1%, 여자 고등학생의 8.1%가 성 관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Kim(2003)은 성 관련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첫 성 관련 경험의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57.0%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때가 28.1%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Kim 외(2004)의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22.7%, Yeoum(2003)의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14.8%가 성 관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2005)의 조사에서 응답한 고등학생의 16%가 성 관련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Kwon 외(2006)의 연구에서도 여자 청소년의 6.5%가 성 관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첫 성 관련 경험 시기가 평균 13.6세로 중학생 시기에 주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고(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여성가족부의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서 성관계 경험자 중 중학교 때 처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49.3%로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Lee, & Kim, 2012). 이렇게 연구자에 따라 성 관련 경험률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성 관련 경험에 대한 정의가 손잡기와 같은 낮은 수준에서 성관계의 높은 수준까지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연령에 따라 성경험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우리나라의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청소년상담원(200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신이 동성에 성향이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본 청소년이 약 11%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을 실제로 접한 중·고등학교 교사의 비율이 무려 43.6%에 이른 것으로(Kim, 2009 재인용) 나타나 청소년의 성문제는 이성관계의 성문제 뿐만 아니

라 동성에 대한 성문제 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성 관련 경험은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일 수밖에 없으며, 일반적으로 청소년 시기의 발달기준에서 벗어나는 일탈 행위로 간주되어 청소년에게 허락되지 않는 다른 비행으로 이어지는 등(Armour & Haynie, 2007)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실제적으로 청소년 성경험 관련 요인에 관한 여러 연구들에서는 흡연, 음주, 약물복용, 폭력성, 낮은 학업 성취, 반사회적 행동 등이 성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Boislard & Poulin, 2011; Kuzman, Simetin, & Franelić, 2007; Peltzer, 2010),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부모관련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Biddlecom, Awusabo-Asare, & Bankole, 2009; Lenciauskiene & Zaborskis, 2008; Wight, Williamson, & Henderson, 2006).

성 관련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는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교 성적, 성 허용성, 위험한 활동추구와 사회적 일탈 추구의 개인적 특성이 성 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고, 환경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부모와 동거 여부, 학교계열, 이성친구가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Kim, Kwon, & Jung, 2004).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교성적, 성 허용성 정도, 부모 동거 여부, 학교계열, 이성친구(Kwon et al., 2006), 흡연, 가출, 성 관련 경험 있는 친구 및 반사회적 성격양상(Lee, 2007)이 성 관련 경험 영향요인이었다.

또한 16세 이전의 이른 성 관련 경험은 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 더 많은 성 상대자를 만나게 하고 알코올 및 약물의 영향 아래에서 성 관련 경험을 하게 하며, 성병으로의 이환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른 나이의 성 관련 경험은 장기적으로 성 건강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andfort et al., 2008).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성 관련 경험으로 인한 문제들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 관련 경험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성 관련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정적 요인, 학교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측면과 관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일차적인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가족역할이 근원적인 요인이 된다(Choi et al. 2005). 특히 사회·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한국 청소년들에게 가족 기능과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성인으로 완전한 독립을 할 때까지 성장발달 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가족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Yoon, Park, Lee, 2009; Biddlecom, Awusabo-Asare, & Bankole, 2009; Boislard, Poulin, 2011). 따라서 청소년의 성 관련 경험 역시 가족의 영향력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대부분 여성의 결혼 이민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교육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경우 아버지의 역할이 일반 가정 보다 강조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 관련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문화 가정여부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학력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성교육의 영향력을 검증해 보기로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다문화 가정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성 관련 경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청소년 성 관련 경험에 대한 다문화 가정의 영향력은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문제3> 청소년 성 관련 경험에 대한 다문화 가정의 영향력은 성교육에 따라 달라지는가?

2. 분석 자료 및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19조를 근거로 정보승인 통계(승인번호 11758호)로 실시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제 7차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제 7차(2011년) 청소년 온라인조사의 모집단은 2010년 4월 기준의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다. 구체적으로 모집단 층화단계에서는 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43개 지역군과 학교급(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모집단을 129개 층으로 나누었다. 43개 지역군은 16개 시도 내의 시군구를 대도시·중소도시와 군지역으로 분류한 후 지리적 접근성을 학교수 및 인구수, 생활환경, 흡연율, 음주율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일반 가정 청소년의 거주지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비율이 높은 반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군지역 거주자가 많이 포함되었다. 일반 가정 청소년들과 비교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중학교 재학생이고등학교 재학생들에 비해 많이 포함되었다. 아버지의 학력의 경우 일반 가정 청소년들 보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중졸이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관적 경제상태 또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하” 집단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변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일반 가정 청소년들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 간의 성 관련 경험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성 관련 경험, 아버지의 학력, 성교육 이수 여부 등을 측정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성 관련 경험은 성교경험을 포함하여(Chang et al., 2001)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에 대한 경험으로 이성과의 키스 및 애무, 이성과의 성관계, 동성과의 키스 및 애무, 동성과의 성관계, 성폭력 가해 등 5개의 항목에 경험이 있으며 1, 경험이 없으면 0으로 처리한 후 합산하여 성 관련 경험 점수를 산출하였다. 성교육은 학교에서 성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며 1점, 이러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면 0점으로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학력의 경우 다문화 가정의 경우 중졸이하가 27.4%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이하면 0점, 중졸이상이면 1점으로 처리하였다.

Table 1. Descriptions of sample

		Frequency(%)		χ^2
		general adolescents	multi-cultural adolescents	
Area	metropolis	34503(45.9)	189(36.0)	83.993***
	town	30897(41.1)	198(37.7)	
	countryside	9718(12.9)	138(26.3)	
School	middle school	38130(50.8)	344(65.5)	61.115***
	high school (general)	27198(36.2)	105(20.0)	
	high school (special purpose)	9790(13.0)	76(14.5)	
Sex	male	37586(50.0)	272(54.7)	4.472*
	female	37532(50.0)	238(45.3)	
father's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graduate	3682(5.9)	104(27.4)	307.577***
	over. middle school graduate	58774(94.1)	276(72.6)	
sex education	yes	50140(66.7)	320(61.0)	7.886*
	no	24978(33.3)	205(39.0)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	57853(77.0)	340(64.0)	44.114***
	low	17265(23.0)	185(35.2)	

* p<.05, **p<.01, ***p<.001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성 관련 경험을 종속변수로, 다문화 여부를 독립변수로, 아버지의 학력과 성교육을 조절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PSS 20.0을 이용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GLM (General Linear Model)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일반 가정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성 관련 경험 차이

일반 가정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성 관련 경험차이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구체적인 성 관련

Table 2. Differences of sexual experience between general adolescents and multi-cultural adolescents

sexual experience		Mean(S.D.)/frequency(%)		T/ χ^2
		general adolescents	multi-cultural adolescents	
hetero-sexual kiss and caress	yes	12156(16.2%)	99(18.9%)	2.747
	no	62962(83.8%)	426(81.1%)	
hetero-sexual intercourse	yes	3129(4.2%)	58(11.1%)	61.188***
	no	71989(95.8%)	467(89.0%)	
home-sexual kiss and caress	yes	1011(1.3%)	50(9.5%)	252.121***
	no	74107(98.7%)	475(90.5%)	
home-sexual intercourse	yes	662(0.9%)	52(9.9%)	454.017***
	no	74456(99.1%)	473(90.1%)	
attentat of sexual violence	yes	622(0.9%)	41(7.8%)	275.247***
	no	74463(99.1%)	484(92.2%)	
score		.23(.57)	.57(1.22)	-13.288***

*p<.05, **p<.01, ***p<.001

Table 3. Sexual experience according to father's education and sex education

		Sexual experience	
		general adolescents	multi-cultural adolescents
sex education	yes	.246(.89)	.431(1.52)
	no	.320(.76)	.923(1.02)
	t-test	15.546***	3.395***
father's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graduate	.323(.62)	.791(1.07)
	over. middle school graduate	.243(.55)	.563(1.54)
	t-test	-8.44*	-1.462

* p<.05, **p<.01, ***p<.001

경험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성과의 키스 및 애무, 이성관의 성관계, 동성과의 키스 및 애무, 동성과의 성관계, 성폭력 가해 모두 일반 가정 청소년 보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이성과의 키스 및 애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성교육과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성 관련 경험 결과

성교육과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성 관련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성 관련 경험 점수는 성교육을 받은 집단의 경우 일반가정 청소년이 .246,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432로 나타났으며 성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의 경우 일반 가정 청소년이 .3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923으로 나타나 성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이 성교육을 받은 집단과 비교해 성 관련 경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이하 집단의 성 관련 경험 점수를

보면 일반 가정 청소년은 .3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791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이상 집단의 결과에서는 일반 가정 청소년들이 .243,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563으로 나타나 역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졸이하 집단과 중졸이상 집단의 차이는 일반 가정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 모두 중졸 이하 집단의 성 관련 경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다문화 가정 여부, 아버지의 학력, 성교육의 성 관련 경험에 대한 효과

다문화 가정여부, 아버지의 학력, 성교육의 성 관련 경험에 대한 영향력 검증 결과는 <Table 4>와 [Figure 1, 2]와 같다. 다문화 가정 여부, 아버지의 학력, 성교육 모두 주효과가 검증되었으며 다문화 가정 여부 × 아버지의 학력, 다문화 가정 여부 × 성교육의 상호작용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Table 4. Effects of multi-culture family, father's education, sex education on sexual experience

source	df	SS	F	p
multi-culture family	1	43.922	137.785	.000
father's education	1	6.760	21.205	.000
sex education	1	22.626	70.978	.000
multi-culture family × father's education	1	1.546	4.3850	.028
multi-culture family × sex education	1	12.370	38.806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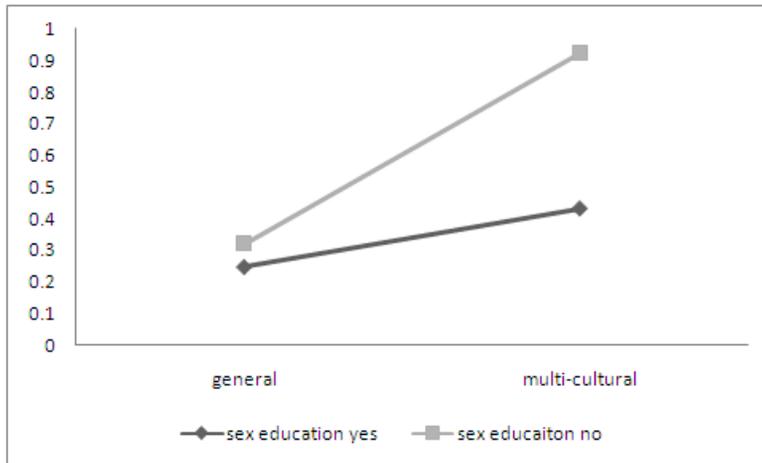


Figure 1. interaction of multi-culture and sex education on sex experi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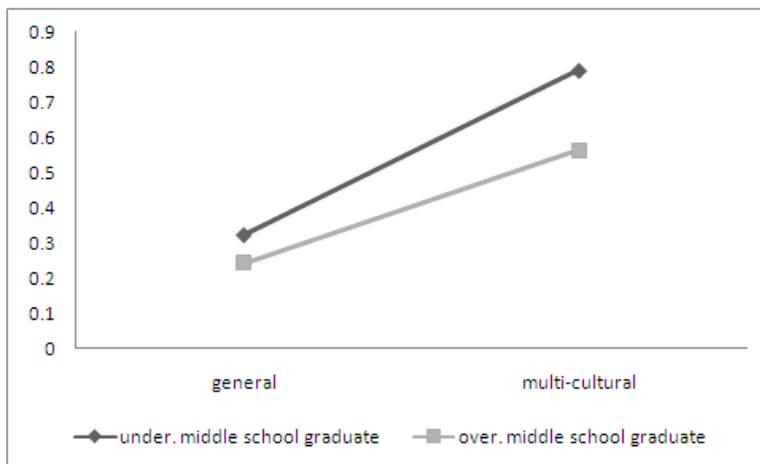


Figure 2. interaction of multi-culture and father's education on sex experiences

아버지의 학력의 결과는 중졸이상 집단 보다 중졸이하 집단의 성 관련 경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일반가정 청소년 집단 보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나 아버지의 영향력을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성교육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성 관련 경험 차이를 살펴보면 성교육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성 관련 경험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일반 가정 청소년 집단 보다는 다문화 가족 청소년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

국 성교육은 일반가정 청소년 보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제 7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일반 가정 청소년들 간의

성 관련 경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차이에 아버지의 학력과 성교육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 보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성 관련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가정 청소년들 보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성 관련 경험에 대해 아버지의 학력과 성교육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일반 가정 청소년들은 아버지의 학력과 성교육에 따라 성 관련 경험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집단과 성교육을 받지 않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 성 관련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74,698명을 대상으로 성행태를 조사한 결과(Lee et al., 2010)를 살펴보면 첫 성경험 연령은 14.2세로 낮아지고 있으며, 5.2%의 청소년이 성관계 경험이 있으며 0.3%의 청소년이 임신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의 성경험이 증가하고 임신, 낙태와 같은 성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노력과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성교육은 가정, 사회, 학교의 공동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성에 대한 공개적인 논란을 금기시 여기는 사회적 풍토로 인하여 가정이나 사회에서 성교육은 한계가 있다(Jeon & Lee, 2007). 특히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1%에 불과하며(Choi, 2003), 청소년들 또한 성문제를 가정에서 논의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Yang, 2012).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많은 선행연구(곽금주, 2008; Koo & Choi, 2012; Han, 2012)에서 일반 가정과 비교하여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성교육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더욱 커져 보인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과 다른 신체적·문화적 차이와 주변의 인식부족, 관련법 및 제도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어려움뿐 만 아니라 언어사용상의 어려움,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 청소년기의 심리적 문제,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에 비해 비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Kim & Shin, 2014). 특히, 성 관련 문제의 경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교육을 통해 사회화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Kim & Lee, 2005)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의 경우 성교육 문제 뿐만 아니라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성 관련 경험의 경우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접적으로 과도하게 성경험이 발전될 경우 임신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결과가 아니다 하더라도 성관련 경험은 청소년 시기의 발달기준에서 벗어나는 일탈행위로 간주되며 이러한 일탈행위는 다른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Armour & Haynie,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다문화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성문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또한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자녀들의 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고 청소년 초기의 이른 시기에 성 경험의 부정적 결과를 고려할 때 이들의 성경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일반 가정 청소년들 보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성관련 경험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외(2004)의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애정과 관심은 많은 청소년 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근원적인 요인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Whitbeck외(1993)의 연구와 Whitaker외(1999)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지지적인 관심과 태도가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태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Klein 등(2005)의 연구에서도 최초의 성교육자 역할을 하는 부모가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자녀와의 성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자녀의 건강한 성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결국 청소년들의 성문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데 다문화 가정의 경우 한국사회의 부적응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자녀들에 대한 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의 경우 결혼이민자이기 때문에 한국적 문화에 부합하는 성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 반면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경우 한국 내 자녀교

육과 교육에 있어 관련 정보의 지식량이 상대적으로 결혼 이민자인 배우자에 비해 많아 부모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정서에 부합하는 성 가치관에 대한 교육은 주로 아버지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아버지의 역할은 일반 가정과 비교해 다문화 가정에서 강조 될 수 밖에 없다(Kang & Lee, 2010).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교육수준이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성관련 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Oh, 2013).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역할과 더불어 아버지의 교육참여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특히 성교육의 경우 아버지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 가치관과 성태도를 위해서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워줄 수 있는 성교육이 필수적이며(Yoon, Jeon, & Park, 2009), 성교육은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간관계교육이므로 가정, 학교, 사회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Yang & Kim, 2004). 청소년들은 성 지식을 얻고 싶어 하는 욕구나 많으나 교육받을 기회가 적어 기본적인 성 지식 조차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친구를 통해 올바르게 못한 성 지식 얻음으로써 그릇된 지식을 얻게 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막상 성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 교사나 부모를 찾기 보다는 친구들과 손쉽게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Yoon, Park, & Lee, 2009). 또한 Kyu와 Moon(1999)은 성 정보 출처는 교사가 가장 많았고, 대중매체, 그리고 친구 순 이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생님부터 성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선생님이 제공하는 성 정보가 친구나 대중매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의 진부성으로 인해 일반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 성교육에 따라 성 관련 경험의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에 따라 성 관련 경험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일반 가정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기초적인 성교육의 부재와 친밀한 친구 사이에서 제

공되어지는 성관련 정보 등 학교 이외에 성관련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정보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 성교육이 일반 가정 청소년들에게는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는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학생들의 성관련 지식수준에 따라 차별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 이외의 성관련 정보가 제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가정 청소년들과는 다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간 진행되지 않았던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성관련 경험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국가승인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데이터 활용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성 관련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학력과 성교육 이외에 성 관련 경험과 관련되는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Armour, S., & Haynie, D. L. (2007). Adolescent sexual debut and later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2), 141-152.
- Biddlecom, A., Awusabo-Asare, K., & Bankole, A. (2009). Role of parents in adolescent sexual activity and contraceptive use in four African countrie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5(2), 72-81.
- Boislard, P. M. A., & Poulin, F. (2011). Individual, familial, friends-related and contextual predictors of early sexual intercourse. *Journal of Adolescence*, 34(2), 289-300.
- Chang, S. B., Kim, S. Y. J., Han, I. Y., Park, Y. J., Kang, H. C., & Lee, S. K. (2001). Sexual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of coitus of teenage girls in Korea. *Journal of*

- Korean Academy of Nursing*, 31, 921-931.
- Choi, M. H., Kim, K. H., Kwon, H. J., & Kim, S. J. (2005). The study on sexual permissiveness, family function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adolescents, *Journal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11(1), 54-62.
- Choi, S. H. (2003). The collapsed sex culture: How will you build again, *Creavity Development Research*, 6, 205-222.
- Gu, G. I. (2008, May). The flood of pornographic, sex education ended in mere gesture. *Weekly Donga*, 636, 32-33.
- Han, K. N. (2012). Mothers' parental education demand for child-rearing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3, 171-190.
- Han, S. H., Kim, J. J., & Choe, M. K. (2002). Effectuated factors on the initiation of sexual activity among Korean young adul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 Statistics*, 27(1), 21-36.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 David McKay Co.
- Jeon, Y. J. & Lee, H. S. (2007). The effect of sex education program on high school girl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sex.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 1251-1268.
- Kang, K. J., Lee, Y. J. (2010). The development and analysis of the effec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fa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4), 89-101.
- Kim, K. H., Kwon, H. J., & Chung, H. K. (2004). A study on the variables forecasting male adolescents' sexual intercourse,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34(6), 95
- Kim, K. (2009). Gay and lesbian adolescents and counseling interention: focusing on one-to-one, group, family, and school counseling. *Asian Journal of Education*, 10(2), 135-168.
- Kim, M. (2003). A Study on the Factors Causing the Female Adolescent Sexual Activity -Focused on the Peer Group's Sexual Experiences, Social Support and Coping-.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6), 63-74.
- Kim, S. H., Shin, J. H. (2014). Influence of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in a multicultural home on poverty delinquency. *The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4(3), 195-202
- Kim, Y. J., & Lee, C. S. (2005). The effects of parents' sexual education on adolescents' sexual behavi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 250-268.
- Kim, Y. J., & Lee, C. S. (2005). The effects of parents' sexual education on adolescents' sexual behavi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 250-268.
- Klein, J. D., Sabaratnam, P., Pazos, B., Auerbach, M. M., Havens, C. G., & Brach, M. J. (2005). Evaluation of the parents as primary sexuality educators program.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7(3 Suppl), S94-S99.
- Koo, H. J., Choi, J. S. (2012). K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of preschool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mono-Korean families in rural area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2(4), 115-136.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The Eigh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VIII)*. Cheongwon.
- Kuzman, M., Simetin I. P., & Franelić, I. P. (2007). *Early Sexual Intercourse and Risk Factors in Croatian Adolescents*. *Collegium Antropologicum*, 31(Suppl 2), 121-130.
- Kwon, H. J., Kim, K. H., Choi, M. H., & Kim, H. Y. (2006). A study on the variables forecasting female adolescents' sexual intercour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2), 170-178.
- Kyu, S. Y., Moon, I. O.(1999). The study on change in sex-related knowledged and attitude through sex edu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6(2). 137-155.
- Lee, J. H. (2007). A study on the variables forecasting female high school students' sexual intercourse. *Studies on Korean Youth*, 18(2), 111-131.
- Lee, J. W., Lee, Y. J., & Kim, J. H. (2012). *A Survey on Harmful Environment of Korean Adolescents in 2012*.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Lee, L. S., Choi, G. T., Cha, S. H., Park, H. Y. & Lee, J. J.

- (2010). A survey on the sexual behavior of adolescents in South Korea: the third survey in 2007.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53, 512-519.
- Lee, M. H. (2013). *2013 Seoul Youth Sex Culture Research*. Seoul: Aha Sexuality Education & Counseling Center for Youth.
- Lenciauskiene, I., & Zaborskis, A. (2008). 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parental monitoring on early sexual behaviour among adolescents in nine European countries.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36, 607-618.
- Noh, C. R. (2000). Use of Rosenberg's self-esteem and collective self-esteem as predicting variables for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Kore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0(1), 107 - 135.
- Oh, S. S. (2013). Effect of home environmental stimuli and mothers' variables in multicultural family their children's linguistic abilities, *Journal of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3(2), 522-531.
- Peltzer, K. (2010). Early sexual debut and associated factors among school adolescents in eight African countries. *Acta Paediatrica*, 99(8), 1242-1247.
- Sandfort, T. G., Orr, M., Hirsch, J. S., & Santelli, J. (2008). Long-term health correlates of timing of sexual debut: Results from a national US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8(1), 155-161.
- Whitaker, D. J., Miller, K. S., May, D. C., & Levin, M. L. (1999). Teenage partners' communication about sexual risk and condom use; the importance of parent-teenager discussion.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31(3), 117-121.
- Whitbeck, L. B., Conger, R. D., & Kao, M. Y. (1993) The influence of paraental support, depressed affect, and peers on the sexual behaviors of adolescent girls, *Journal of Family Issues*, 14, 261-278.
- Wight, D., Williamson, L., & Henderson, M. (2006).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people's sexual behaviour: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29(4), 473-494.
- Yang, S. O., & Kim, S. J. (2004). Development of an evaluation tool for middle school student sex educ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10, 332-339.
- Yang, T. K. (2012).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s, and need for sex educ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an Health Nurse*, 18(3), 159-169.
- Yeoum, S. G. (2003).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Gender role Identity and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9(3), 309-318.
- Yoon, I. K., Jeon, S. K., & Park, S. Y. (2009).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sex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2, 73-92.
- Yoon, I. K., Jeon, S. K., & Park, S. Y. (2009).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sex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2, 73-92.
- Yoon, I. K., Park, J. Y., and Lee, S. J. (2009). A study on the efficiency sex education &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4), 127-144.
- 곽금주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가정에 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1-26.
-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 (2005). **청소년 성문화 연구조사보고서**. 서울: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3). 청소년 고민: 내가 동성애자인가요? 한국청소년상담원.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제 7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일반 가정 청소년들 간의 성 관련 경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차이에 아버지의 학력과 성교육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성 관련 경험을 종속변수로, 다문화 여부를 독립변수로, 아버지의 학력과 성교육을 조절변수로 선정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S 20.0을 이용하여 GLM(General Linear Model)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여부의 주효과가 검증되었으며 아버지의 학력과 성교육 조절효과 또한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일반 가정 청소년들 보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성 관련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정 청소년들 보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성 관련 경험에 대해 아버지의 학력과 성교육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 청소년들은 아버지의 학력과 성교육에 따라 성 관련 경험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집단과 성교육을 받지 않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 성 관련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논문접수일자: 2014년 10월 17일, 논문심사일자: 2014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01월 20일